

**자료의 민주주의, 공화국의 문헌들**  
**-북한문학 연구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자료 탐색기**

김민선(연세대)

1.

내가 그다지 성실한 연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고백하는 것이 좋겠다. 북한문학을 연구하고는 있으나, 주변의 동학과 선생님들의 연구와 자료를 향한 열정은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글을 적당히 성실한 북한문학 연구자의 -몹시도 개인적인- 푸념 섞인 자료 탐색 성찰 기록 정도로 가볍게 독해하여 주었으면 한다.

이 발표를 기획한 계기는 『로동신문』의 일반자료화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해당 신문을 일반자료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부터의 일이다. 2026년 1월부터 『로동신문』은 일반자료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열람과 복사에도 제한이 없어졌다.

이 ‘사안’에 대한 수많은 논평이 쏟아졌다. 정보의 통제를 예외로 인정하던 한국 민주주의의 관행에 대한 지적<sup>1)</sup>에서부터, 대통령의 견해가 타당하지만 ‘중복세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sup>2)</sup>, “로동신문 개방은 대한민국 멸망의 길”<sup>3)</sup>이라는 일갈까지 『로동신문』 일반자료화에 대한 의견이 난립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칼럼만 언급한 것이고 온라인에는 꽤 험한 표현이 담긴 텍스트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북한문학 전공자인 나는 이 글들을 읽으며 의외로 내 주변에 바뀐 것이 없다는 것에 고개를 가웃했다. 여전히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5층 북한자료실에서 열람하고, 북한자료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료실 앞에서 이용증을 다시 인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로동신문 홈페이지를 클릭하자 인터넷 창은 오랫동안 끄끄거리다 마침내 익숙한 페이지를 열었다. 불법 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창. 2월 초인 현재까지도 아직 웹상의 일반자료화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자료가 ‘개방’된 기점을 돌아본다면 역시 1988년 월북작가 해금 조치가 가장 큰 전환점이라 할 것이다. 관 주도로 낱·월북 문인의 해방전 텍스트가 ‘해금’되면서 상업 출판과 문학적 복권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의 논의가 지적한 바대로, 88올림픽을 앞두고 이념적 포용성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도 해금 조치는 월북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해방전 근대문학사의 복원과 냉전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체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역사 인식 전환의 가능성을 열었다.<sup>4)</sup>

---

1) 김홍열, 「김홍열의 디지털 콘서트」 로동신문 공개가 의미하는 것, 『미디어스』, 2026.1.14.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826>> (검색일자:2026.1.27.)

2) 임종건, 「[임종건의 드라이펜] ‘로동신문’ 개방보다 여당과 대화를, 『주간한국』, 2026.1.2.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3615>> (검색일자:2026.1.27.)

이 글은 무려 우리 사회에 중복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 매체의 보도는 공식 발표를 제외하면 “자료로서 가치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다. 글을 쓰는 지금 문득 머쓱하다.

3) 김태산, 「[김태산 칼럼] “로동신문” 개방은 대한민국 멸망의 길이다, 『FNTODAY』, 2026.1.15.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865>> (검색일자:2026.1.27.)

4) 김성수, 천정환 엮음, 『해금을 넘어서 복원과 공존으로-평화체제의 월북 작가 해금의 문화정치』, 역락, 2022 참조.

당시 문학 연구자가 가장 가까워서 감촉할 수 있었을 해금은 아마도 상업 출판되는 해방전의 텍스트, 거론하더라도 가려지지 않는 이름들, 무엇보다도 1989년에 개관한 (구)국토통일원의 ‘북한 및 공산권 정보 자료센터’이지 않았을까. 광화문우체국 6층에 자리 잡은 자료센터는 열람 및 복사를 위해서는 추천서와 서약서가 필요했다. 초창기에는 복사가 불가능해서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사를 해야하는 수준이었다고 들었다. 서약서와 기관장추천서를 제출한다는 전제하에 복사와 대출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며, 이는 2021년에 공문·기관장추천서 제출을 폐지할 때까지 계속되었다.<sup>5)</sup> 사실 기관장추천서는 본래 매년 새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명무실해져 나 또한 두 번 정도만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21년에 폐지되었지만 사실 이미 오래전에 제출했던 터라 무언가가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2009년 현재의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사하기 전까지의 이른바 ‘광화문 시절’은 비교적 넓은 공간과 여유로운 열람이 있었던 낭만의 시절로 회고된다. 센터 내에 자료열람실과 시청각실, 북한TV시청실도 있어서 북한 관련 자료를 안락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풍경은 이사 직전 통일부 학생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6)</sup> 개인적으로는 광화문 시절의 마지막 1년을 스치듯 경험해보았던 터라 서초동 북한자료실이 더 익숙한 편이다. 그래도 서울 한복판이라는 접근성과 독립적으로 위치해있어서 공간 활용 면에서 좀 더 여유롭고 출입을 위한 인증 과정이 비교적 편리했었다는 기억은 남아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자료센터는 국립중앙도서관 5층의 북한자료실에 자리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사한 후의 기억이 좀 더 생생한 것은 내 또래 북한 연구자의 공통적인 상황일 것이다. 이사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서약서와 추천서 제출은 여전히 필요한 절차였고, 무엇보다 국립중앙도서관 내로 이동했기 때문에 북한자료센터 출입을 위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정기이용증을 등록하는 절차가 새로 필요했다. 위치나 접근성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편이지만, 짐을 맡기고 정기이용증을 인증하는 절차 등에 있어서 약간의 번거로움이 더해진 셈이다.

한 가지 서초동 시절에 대해서 특기한다면, 2010년대 중반쯤부터 근조화환길을 자주 걸을 수 있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서초역에서 걸어서 올라가는 경로를 택하면, 대법원과 대검찰청 앞을 지나게 된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면 역에서 대법원을 거쳐 서초경찰서로 향하는 오르막길까지 화환이 죽 늘어서곤 한다. 비교적 최근인 2025년 10월에는 모 판사를 응원하고 누군가를 다시 복권하라는 화환이 늘어 있었다. 북한자료를 읽으러 가는 북한문학 연구자로서는 내 연구의 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참회와 고뇌의 길이다.

### 3.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자료의 디지털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고뇌와 참회의 시간을 조금 줄여준 것도 사실이다. 2003년 ‘특수자료취급지침’의 5차 개정 이후,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을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sup>7)</sup> 이에 따라 적어도 어떤 자료가 있는지 온라인으로 검색해

5) 신분 확인을 위해서 제출하던 추천서는 2021년부터 폐지되었으며,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자료이용신청서를 자료이용신청서로 일원화하였다.

6) 대한민국 통일부, 『유니콘이 알립니다』 북한이 궁금하면? 북한자료센터 찾아가면 되고!, 『통일부 공식블로그』, 2017.2.16. <<https://blog.naver.com/gounikorea/220936679376>> (검색일자:2026.1.29.) 해당 글의 원문은 2009.3.18.에 이전 통일부 공식 블로그 역할을 담당하던 티스토리(tistory.com)에 게재되었으며, 이후 현재의 통일부 공식 블로그로 이동되었다.

보고 자료센터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내가 자료센터를 방문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활성화된 상황이었기에 변화를 감촉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내가 온라인에서 북한문헌을 읽을 수 있음에 전을했던 것은 2021년에 이르러서였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북한자료 컬렉션이 온라인으로 원문 공개되었기 때문이다.<sup>8)</sup>

물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가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의 북한노획문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는 있으나, NARA자료는 주로 문서류이다. 북한의 문학예술 연구자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미국 의회도서관의 컬렉션이다. 이곳에서는 작가동맹 기관지인 『조선문학』에서부터 대중교양지 『천리마』, 전문지인 『조선의학』 등에 이르기까지 1948년부터 1967년까지 간행된 다양한 잡지 자료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이 시기 북한자료의 원문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의회도서관의 자료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다만 키워드 검색에는 미 의회도서관 사이트가 불리하다. 그래서 보통은 중앙도서관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연결된 자료를 보거나,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해당 시기의 정기간행물에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의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북한 자료의 특성상, 원문을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역사자료의 공개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sup>9)</sup>

#### 4.

그래서 이제 『로동신문』도 일반자료화 되었으니 북한문학 연구도 수월해진 것이 아니냐고? 몇몇 논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로동신문』이 일반자료화 되었다고 해서 북한 이념에 물드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북한문학 연구자의 자료 탐색 방법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로동신문』을 복사할 때 신청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그뿐이다. 여전히 『로동신문』 홈페이지는 열리지 않고 실물로 보기 위해서는 서초동에 가야 한다. 게다가 『로동신문』만 일반자료가 되었을 뿐, 문학지인 『조선문학』이나 『청년문학』, 최신 수입된 소설책 등은 여전히 특수자료이다. 복사를 위해서는 연구 목적임을 밝히는 자료이용신청서 겸 서약서를 써야하고 데이터베이스 열람 후엔 열람 목록에 서명해야 한다.

특히 잡지의 일부가 데이터베이스화되면서 키워드 검색과 원문 열람은 용이해졌으나, 자료센터를 나서기 전에 열람한 기사 목록에 서명하는 절차가 더해졌다.(이 데이터베이스는 자료센터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국가가 원한다면 내가 언제 어떤 자료를 열람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 연구자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겠나 싶지만 2026년에도 북한문학 연구자는 여전히 감시를 의식해야 하는 존재라는 씁쓸함은 덜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 북한 ‘문학’은 문학이기보다는 ‘북한’ 문학이다. 나 또한 북한 ‘문학 연구자’가 아니라 ‘북한’ 문학 연구자이다.

게다가 한국의 북한문학 연구자들은 정작 최신의 북한 자료는 열람이 어려운 연구자들이기도 하다. 『조선문학』의 예를 들어보자. 통일부자료센터의 『조선문학』이 중국을 통해 수입, 인

---

7) 북한자료 공개제도의 변화와 자료 취급 및 수입 등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에 작성된 논문이지만 공개 기준, 자료 세분화 등을 제외하면 2026년 현재에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 취급의 원칙과 관리 규정 등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우영 전영선, 「북한자료 공개제도 개선 방안 연구」, 『현대북한연구』 12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

8) <<https://www.loc.gov/collections/north-korean-serials/about-this-collection/>>

9) 북한자료의 웹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북한사 기초자료의 디지털화와 활용-국사편찬위원회 북한 자료 DB 구축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57, 한국사학회, 2025.

가를 거쳐 센터에 배치되기까지는 약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서울과 평양 사이에 3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에 비해 해외 연구자들은 어떠한가. 온라인으로 구독하는 학교 도서관, 개인 구독, (한국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당일 자료를 공개하는 사이트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sup>10)</sup>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던 기간에는 약 2년 동안 새로운 정기간행물을 열람할 수 없었다. 때문에 2021년 초까지 한국의 북한문학 연구는 2019년 자료에 매달려 곱씹어 읽기를 반복해야 했다. 이 답답한 상황은 결국 자료를 공유해준(!) 해외 연구자의 선의로 비로소 해소되었다. 신간 정기간행물이 자료센터에 도착한 2022년 10월경까지 국내의 북한문학 연구자들은 해외 연구자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북한 영화나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이라면 역설적인 상황도 마주하곤 한다. 북한자료센터에서는 신청 절차를 통해서, 센터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영상 자료들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화가 그러한데, 이전 북한영화에 비해 비교적 화려한 영상을 보여주었던 <하루 낮 하루 밤>(2022)의 후속편인 <대결의 낮과 밤>(2025)을 보자. 무려 기차 대결신을 보여주며 북한영화가 노오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작이다. 이 영화는 북한자료센터에서 특수자료이자 ‘이용제한’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유튜브에 버젓이 공개되어있다. <대결의 낮과 밤>이 이러한데, 다른 영화 자료들은 어떠할까. 검색만 잘 한다면 의외로 쉽게 유튜브에서 감상할 수 있다.

## 5.

한국에서 북한의 문헌은 여전히 오래된 냉전 이념의 틀 속에서 관리된다. 그것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이러한 틀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양한 서사와 목소리와 텍스트가 공존하는 문학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기초 자료와 문헌에, 시선에, 관리하는 방식에, 접근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이념적인 위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접근 과정이 수월해진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개인적인 의문과 불안이 남는다. 설령 북한의 문헌을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적은 이 자료를 굳이 구독하려는 기관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여전히 이념적으로 경계의 대상이거나 정치적으로 동원되기 너무도 쉬운 대상인 북한의 문헌. 심지어는 구독료 대비 효율적이지도 못한 이 문헌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여전히 한글로 씌어진 ‘읽을 수 있는’ 문헌들을.

어쩌면 우리는 자료의 민주주의를 바라기보다 자료의 자본주의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와 마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학 연구자인 나는 여전히 자료의 민주주의를 희망해야 할 것이다. 읽는 사람이 적은 자료를 읽고 이해하려 하는 만큼,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보다는 학술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나의 학문적 깊이와 공감대가 얕다고 느끼는 만큼, 더 주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내가 읽은 자료들이 나를 독재자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근조화환길을 걷고, 제발 센터가 더 멀리 이사 가서 지금보다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씩씩하게, 그래도 꾸준히 희망하려 한다.

---

10) 사이트 ‘조선언론정보기지’는 한 때 신간 자료에 한하여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온라인 배포한 시기가 있었다. 현재는 모두 유료서비스이다. 물론 한국에서는 가입할 수 없다. 이외에 KCNA WATCH에서 『민주조선』이나 『통일신보』, 『Pyongyang Times』와 같은 대외 매체의 최신판 일부를 읽을 수 있다. 한국에서도 접근 가능하지만 대외 매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며, 문학은 당연히 없다.